

Sermon of the Week:

The Blood that Frees Us From the Egypt Within Us



Passage: 2 Corinthians 5:17 (ESV)

Date: December 21, 2025

Pastor: Dong Suk Chung

After eating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humanity lost the position that God had created and declared as "good." People lost their value, honor, and dignity. Just as God warned, "You shall surely die", sin and death entered the human race. From birth, humanity became a people headed towards the grave. Those who were 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o live in union with Him had lost the purpose of life and were driven out of the Garden of Eden.

The condition of humanity after Eden is revealed through Cain and Abel. Cain represents Adam and Abel represents Jesus. When Cain killed Abel, it foreshadowed that our sin would kill Jesus. Cain's words, "Am I my brother's keeper?", expose the human condition: even though Jesus died because of our sin, we remain unaware of that reality and feels no true guilt. After killing Abel, who was a foreshadow of Jesus, Cain fled from God's presence and built the city of Enoch, forming a world apart from God. In this way, those who belonged to the realm of lies and death built the world, and sin became increasingly widespread. What the world today calls "progress" is no different. It is another version of the city of Enoch, where humanity leaves God and tries to do what only God can do.

Even after the judgment of water in Noah's time, humanity tried to rival God by building the Tower of Babel. This is reflected in the way the world builds even today. Just as the Israelites were forced to build store cities in Egypt, all humanity today liv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world. Yet God delivered Israel from Egypt to give them

freedom and life, so that they could build God's temple. In the same way today, God continues to free us from sin in order to build the Church.

This world is destined for judgment by fire [2 Pet 3:6-7, Heb 1:10-12]. Not only the world, but our physical bodies were also born into death because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flesh is the grave. Therefore, there is no hope in the world, in people, or in anything of this earth. The only hope and purpose of human life is to receive redemption and life through Jesus Christ. Since this world will ultimately pass away or be burned, we must not waste our time and strength on things of this world. We must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The Lord told us not to worry about what we will eat, drink, or wear. We were born into this world for one reason alone: to receive Jesus Christ as our Savior and be born again into new life. Apart from this, all the happiness and success that the world offers are lie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John 3:16]. When His only Son comes to live within us, then that is eternal life and the kingdom of heaven. We are born into this world so that we may receive the privilege of living in transcendent peace, ruled by nothing of this world, with the Lord Himself as our everything.

God came in a body representing the creation that He Himself made, died on the cross together with all of creation, and rose again. We also died and were raised with Him, and today He has come to dwell within us through faith. This union between God and humanity is the purpose of our lives and the reason that God created us. When we say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it does not mean He did this in our place as a substitute only. It means He became us and died and rose again as us. Now the Lord and

I are one. The One who was crucified and resurrected on the cross of Calvary is now who I am. The "I" that belongs to Adam is a false self, destined to die and bound for the grave. Therefore, the rest of our lives should not be spent worrying about what to eat or wear. Instead, it should be the time in which this truth becomes reality in our spirit, soul, and body. We must fight the battle of putting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by the Spirit.

When the disciples asked Jesus, "What must we do, to be doing the works of God?" Jesus answered,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John 6:29]. To believe does not mean accepting truth in theory alone. It is prayer, daily living, and a life in which that truth becomes a full reality in our spirit, soul, and body. This is the work of God. Serving in the church is also work, but the most fundamental and true work is to receive by faith the finished work of the cross and resurrection and to live in its reality. This is the work of God; and this is what glorifies Him.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2 Cor 5:17]. This verse is truly precious and full of joy. We must accept that this is already true of us. As we stop hoping in the first Adam, the original creation, and deliver him over to death, the Lord's life within us will increasingly abound and overflow, allowing us to experience His complete and perfect character. When we believe and claim by faith that we have already been made complete in Jesus, the Holy Spirit works powerfully. Each time we hear His Word, read it, and meditate on it, may every verse become our own. May this blessed work be abundant among us, until we ourselves become living testimonies of Scripture.

심니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1월 4일, 2026년

NASUNGCHURCH.NET

88 호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날짜: 12월 21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신 사람의 위치, 곧 사람의 가치와 명예와 존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이 들어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덤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존재가 삶의 목적을 잃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동산 이후의 인류의 모습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 나타납니다. 가인은 아담의 모형이고 아벨은 예수의 모형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여 줍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는 가인의 말은, 예수가 내 죄로 죽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인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녹성을 쌓아 세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거짓과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루며 죄는 점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말하는 '발전' 역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들이 하겠다며 만든 에녹성과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물 심판 이후에도 인류는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과 비기려 했고, 이것이 오늘날 세상 건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국고성을 짓기 위해 동원되었듯, 오늘날 온 인류가 세상 건축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은 자유와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기 위함이

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십니다.

이 세상은 장차 불로 심판받게 되어 있으며(벧후 3:6-7, 히 1:10-12), 세상은 장차 불로 심판받게 되어 있으며(벧후 3:6-7, 히 1:10-12), 세상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선악과로 인해 죽어 태어났기에 끝은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소망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떠나가거나 불탈 것이기에, 여기에 시간과 정력을 빼앗기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함이며, 이것 외의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이 독생자가 내 안에 오시면, 그것이 곧 영생이며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초월된 평강 속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을 대표한 몸으로 오셔서, 만물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되었고, 그분을 믿는 오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셔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입니다. 아담에 속한 사람인 '나'는 가짜이며,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 위한 삶이 아니

라, 이 사실이 내 영과 혼과 몸에 실체가 되게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9)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이론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영과 혼과 몸에 충만한 실체가 되도록 하는 기도, 생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 봉사도 일이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참된 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실체가 되게 하고, 그 실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후 5:17)는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창조인 아담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죽음에 넘길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차고 넘쳐 온전한 인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온전케 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 것임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구절구절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한 권의 성경책이 되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 최귀순 전도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홍옥봉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오른쪽 어깨 탈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홍영강 권사** 모세선교회 **넘어져 대퇴부 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조연경 형제** 베드로선교회 **방광암 치료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송제인 집사** 1여선교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과 남은 치료를 위해, 병원 비용이 보험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 박관서 형제** 모세선교회 **알츠하이머와 근육소실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 김상준 형제** 4,5 남선교회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유니스 안** 4,5 여선교회 **유방암 항암치료와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안현숙 권사 딸)**
- 고원창 집사** 여호수아회 **항암 치료중에 stroke으로 인한 치료 후 재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폐 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연약함 중에 양로 병원에 계십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한아림 자매** 청년회 **난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은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서인숙 권사** 한나선교회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회복과 건강을 위해**
- 김묘자 권사** 모세회 **천식으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3여선교회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김영자 집사** 모세회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1여선교회 **유방암과 림프 전이 및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해**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조희순 집사** **어깨 수술 (오른쪽 회전근개파열) 후 재활치료 중인데 왼쪽 어깨와 팔목 통증이 심합니다. 재활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희정 집사** **남편 (강재규) 알콜성치매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
- 김옥경 집사** 82세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귀에 통증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자녀들(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자매** 60세, 도봉구역 **궤양성대장염으로 20년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연희 집사** **허리 디스크 탈출과 협착증으로 수술하였습니다. 마비되었던 엄지 발가락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발에 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윤춘자 집사** 81세, 양주구역 **허리협착증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소식

멕시코 엔세나다 소식

임주영 목사

샬롬! 이 땅 엔세나다에도 서늘한 공기가 불며 쌀쌀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시며 허락하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도 교회를 아름답게 빛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변화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당 입구 쪽에 난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설치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조금 위험한 부분이었는데 안전한 울타리가 생겨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한 창고로 쓰던 두 개의 방에 페인트칠과 벙커베드를 설치하여 많은 영혼들이 방문했을 때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외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원주민 마을의 영혼들을 모아 연말 집회를 가졌습니다. 교보재를 통한 어린이 복음설교, 참여형 활동, 의료사역을 진행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70여 명의 영혼들이 모였고 귀한 음식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귀했던 시간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어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 각자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고백하며 화답하는 시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의료사역 중에는 4명의 영혼이 치료를 받았는데 그중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한 영혼의 위장 상태가 많이 좋지않아 2주간 살펴본 후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임을 알았습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으로는 분명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영혼의 환부를 가장 잘 아시고 치료해 나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 이 영혼 (아라셀리)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며 서로를 세우기 위함임을 다시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며 소식 마무리합니다. Gracias!



주간소식

- 오늘 2부 예배 후에 1월 정기 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Income Tax에 대한 현금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일주일 후에 안내석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현금확인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나성교회 삼나소식

왼쪽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나성교회 삼나소식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